



출처 미 공군 홈페이지(<https://www.af.mil/News/Photos/>)

## 공식적으로는 퇴역이지만 사실은 현역입니다?

### 퇴역 후에도 비밀임무 수행 중인 F-117A 스텔스 공격기

지난 2008년 공식적으로 퇴역한 미 공군의 F-117A 나이트호크는 역사적, 군사적, 기술적 관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스텔스 공격기다. 그런데 수많은 항공 마니아들의 증언과 언론취재에 의하면 F-117이 퇴역 후 무려 13년이나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며 다양한 비밀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F-117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논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침묵하던 미 공군이 일부 사실을 확인하면서 세계 항공 및 군사 마니아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계동혁 전사연구가

#### 스텔스 신화의 시작을 알린 F-117A

지난 1991년 벌어진 걸프전에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주목받은 무기가 있다. 바로 미 공군의 F-117A 나이트 호크(Nighthawk) 스텔스 공격기다. 당시 미 공군은 적군은 물론 아군의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는 F-117의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레이더와 대공화

기가 조밀하게 배치된 이라크의 방공망을 간단히 무력화시켰다. 특히 수많은 대공화기의 사격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 상공에서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는 F-117의 활약은 이후 미래 공군력과 차세대 전투기의 발전 방향에 커다란 이정표가 됐다.

미국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F-117을 파나마 침공을

시작으로 걸프전, 이라크전, 보스니아전 등 미국이 개입한 주요 전쟁에서 주요 전략목표를 타격하는, 공격의 선봉으로 활용했다. 특히 걸프전 당시 레이저유도폭탄으로 바그다드 시내의 주요 전략시설을 폭격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일약 미국의 최첨단 군사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3월 보스니아에서 진행된 얼라이드포스작전(Operation Allied Force) 당시 세르비아군의 SA-3 지대공 요격미사일에 F-117A 한 대가 격추당하면서 불패 신화가 깨지기도 했다.

#### 새로운 스텔스 기술의 등장과 F-117의 퇴역

다양한 1세대 스텔스 기술이 집약된 F-117은 전쟁에서 활약한 최초의 스텔스 공격기라고 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술을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다. 특히 미래 공군력의 핵심이 될 제5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스텔스 능력을 논함에 있어 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 바로 F-117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1981년 6월 18일 시제기가 처녀 비행에 성공했으며 1983년 10월 15일부터 실전배치가 시작되었다. 시제기(YF-117A) 5대를 포함해 총 6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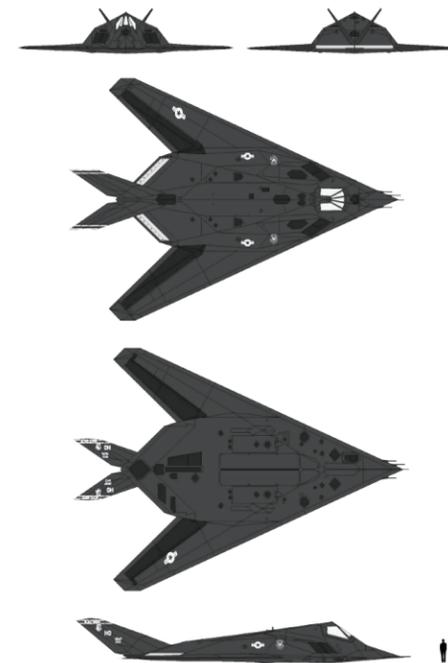


F-117의 비행 목격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공군 토노파 공군기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F-117의 사진이 SNS를 통해 공개되었다. 출처 forums.jetcareers.com

의 F-117이 록히드(현재의 록히드 마틴)에서 생산됐다. 하지만 2세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B-2, F-22의 등장과 카운터 스텔스(Counter Stealth)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1세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F-117의 퇴역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본격적인 스텔스 폭격기라 할 수 있는 B-2 폭격기는 1997년부터, 현존하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22 전투기는 2005년부터 실전배치가 시작됐다. 결국 F-117은 신기술이 적용된 B-2 및 F-22의 실전배치와 사실상 대체기종으로 볼 수 있는 F-35의 개발로 인해 퇴역이 결정됐으며, 지난 2007년 3월 12일 마지막 임무 비행을 수행했다.

#### 충격과 공포의 F-117 해체

보통 군용기들이 퇴역 후 AMARG-(Aerospac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Group)에서 재활용(scrap)을 위한 일련의 재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F-117은 스텔스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AMARG가 아닌 네바다 사막에 위치한 미 공군 토노파 공군기지(Tonopah Air Base)에 재배치되었다. 2008년 4월 22일 마지막 F-117이 토노파 기지의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완전히 퇴역하게 된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퇴역한 F-117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만큼 최고 기밀등급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베일에 싸여있다. 특히 중장비를 동원한 미 공군의 F-117 해체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에게 F-117이 완전히 퇴역했다는 이미지



제1세대 스텔스 기술이 집약된 F-117은 커다란 삼각자와 다리미를 합쳐놓은 것 같은 각진 외형이 특징이다. 출처 위키미디어 홈페이지(<https://wikipedia.org/>)



중장비로 폐기처분되는 F-117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F-117이 완전히 퇴역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F-117(기체번호 79-10784)은 기체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평가를 위한 것으로 확인했다. 출처 www.aerospaceweb.org



를 각인시켰다. 하지만 미 공군이 F-117의 퇴역을 공식 발표한 2008년 이후 꾸준히 F-117의 비행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이어졌고 2010년 11월에는 동영상까지 유튜브에 공개되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F-117의 비행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UFO를 목격했다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주간에 촬영된 F-117의 고화질 비행 영상은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미 공군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동안 F-117의 비행을 기정사실로 한 항공/군사 마니아들은 F-117의 비행에 대해 다양한 추측과 분석을 내놓았고 일부 항공/군사 마니아들은 미 공군이 숨겨놓은 F-117을 찾기 위해 네바다 사막 주변에서 F-117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F-117과 관련된 미 공군의 공식 답변**

지난 2019년 8월 28일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워존(The Warzone)은 미 공군으로부터 F-117 퇴역에 대한 공식 답변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워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라이트 패턴슨 공군기지(Wright Patterson Air Force Base) 소속 브라이언 브라켄스 공보관은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최초 미 공군은 전시 등의 목적으로 박물관 등에 기증된 8대를 제외한 나머지 51대의 F-117을 2016년까

지 'Type 1000'이라는 코드명으로 실전배치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기로 했다는 것. 이후 2017년부터 매년 4대씩 순차적으로 F-117을 해체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Type 1000'으로 지정되면 최단 30일, 최대 120일 이내에 재취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최소 10대 이상의 F-117이 지금도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공군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irforce) 기증을 위해 F-117A 1대(기체번호 79-10781)의 스텔스 페인트(Radar-Absorbent Material, RAM)를 벗겨내는 과정에서 다량의 독성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견됐고 결국 F-117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해 해체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공군국립박물관에 전시된 기체는 스텔스 페인트 제거 당시 발생한 독성물질로 인해 '유독한 죽음(Toxic Death)'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까지 얻기도 했다.

**흥미로운 언론의 분석**

지난 2019년 8월 28일 워존(The WarZone)의 조셉 트레비딕은 F-117과 관련된 특집 기사를 통해 현재 베일에 가려진 F-117의 근황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기사를 통해 최소 1대 이상, 최대 5~6

대의 F-117이 비행 가능한 상태로 네바다 사막에 위치한 토노파 공군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미 공군이 소수의 F-117을 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략 3가지의 분석을 내놓았다. 첫 번째 분석은 스텔스와 관련 기술의 시험, 평가, 신기술 혹은 레이더 전파 흡수 목적의 특수 페인트 개발을 위한 실험기로 퇴역한 F-117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분석은 새로운 전투 무인비행체(UCAV) 개발을 위한 체계 통합 및 시험용 기체라는 것.

마지막 분석은 F-117이 미 공군 최초의 스텔스 항공기인 만큼 가상적기의 역할을 F-117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 끝으로 그는 F-117이 매우 특별한 항공기이며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상당한 전문 인력과 숙련된 조종사, 그리고 적지 않은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매우 가치 있는 일에 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F-117의 전설은 계속된다**

공식적으로 미 공군의 F-117은 현장에서 퇴역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F-117이 활용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지난 1월 30일에는 미 공군 항공기동군단(AMC)이 F-117에 대한 KC-135 공중급유기의 공중급유를 공식 허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명령을 근거로 일부 언론에서는 F-117이 적국감시 혹은 적대국 요인에 대한 암살과 같은 비밀임무에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F-117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같은 실전 혹은 비밀임무에 다시 투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F-117이 주로 비행하는 지역이 NTTR(Nevada Test and Training Range)로 알려져 있고 훈련 중인 항공기동전단에 근접하거나 레드 플래그 기간 중 가상적기 임무를 수행하는 등 각종 시험평가 임무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F-117의 비행 임무에 투입되고 있는 조종사들이 공중전투사령부가 아닌 공군 시험비행센터 소속으로 알려져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또한, 지금도 F-117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험평가가 미 공군의 카운터 스텔스(Counter Stealth) 기술 발전에 이바지했

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F-117의 비밀스러운 비행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앞으로 길어야 1~2년 정도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한다.

일단 2020년 이후 F-117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둘 확인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분해된 F-117이 미국 내 주요 박물관으로 수송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필자제공



현재 미국 공군국립박물관에 전시된 기체(기체번호 79-10781)는 스텔스 페인트 제거 당시 발생한 독성물질로 인해 '유독한 죽음(Toxic Death)'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까지 얻기도 했다. 출처 미 공군 홈페이지(<https://www.af.mil/News/Photos/>)



항공/군사마니아 브레인과쉬 뷰트가 지난 2015년 400mm 망원 렌즈로 촬영에 성공한 F-117의 이착륙 모습. 최근에도 F-117의 이착륙 모습이 토노파 공군기지 인근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출처 <http://nationalinterest.org/>